



단지배치 계획안.

/뉴시스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연내 정비계획 결정 완료 전망  
50층 내외, 2050세대로 정비

서울시는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1978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고 12층, 13개동으로 구성된 1572세대의 주거 단지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신반포2차 아파트는 50층 내외 2050세대로 거듭난다. 정비 사업 면적은 11만

7789.1㎡다.

시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과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30m 이상의 통경축을 열고 공공보행통로 변으로 디자인 특화동을 배치했다. 또 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허용했다.

지역 주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이 저조한 대상지 북측 녹지를 정비구역에 편입시켜 산책 숲길로 재조성하기로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에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 열차 추가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 나서

서울시-교통공사, 2·3·5호선 증회 내년 9호선 신규 전동차 8편성 추가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하철 혼잡도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혼잡도가 높은 노선에 열차를 추가하고, 증회 운행에 나서기로 했다. 내달 3일부터 지하철 2·3·5호선의 운영을 4회(오전·오후 각 2회)씩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9호선의 경우 내년 초 신규 전동차 8편성을 추가로 도입해 운영

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하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역사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승강장, 계단, 연결통로 등 주요 밀집구간 내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전동차 증차와 이동 통로 확장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철 혼잡도의 근본적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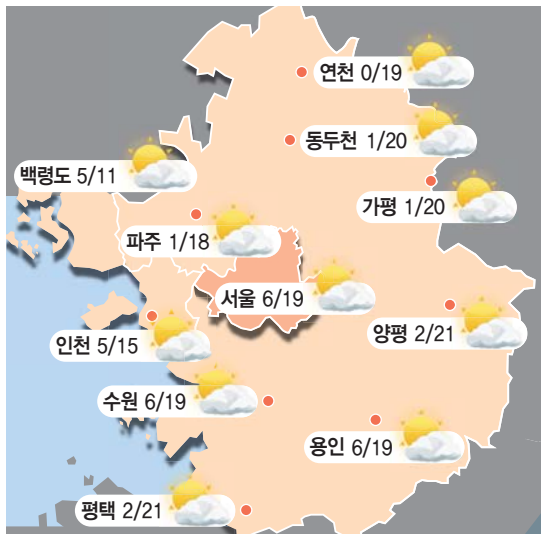
해돋이 / 06:23 | 해질 / 18:51

3월 29일 (수)  
음력 : 2월 8일

수도권 날씨

6~1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경기도, AI 등 새싹기업 25곳 선정 을 사업화 자금 3600만원 씩 지원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추진  
경영컨설팅·투자유치 교육 등  
희망 창업가 내달 14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2023년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추진, 자율주행·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예비·초기 새싹 기업(스타트업)을 키워 창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우수한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도내 예비·초기 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둔 경기도의 대표 창업 지원사업이다.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00여 명의 기술 분야 예비·초기 창업가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새싹 기업 25개 사를 선정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공공테크노밸리 내 공공기관의 우수 역량을



/경기도

활용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싹 기업 육성과 사업화 자금 기업당 3600만 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새싹 기업의 역량개발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개방형 창업 공간인 ‘창업베이시캠프’에서 전문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경영컨설팅, 투자유치 교육, 기업홍보(IR) 사업계획서 제작, 기업교류(네트워킹) 등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가를 4월 14일까지 모집하며, 도내 기술 기반 창업가 중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초기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융합기술 분야(자율주행, 답러닝/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반 인공지능, 클라우드, 모바일, 가상·증강현실, 로봇 융합 등 4차산업 또는 융합기술) ▲나노기술 분야(반도체, 부품 및 장비, 소재, 스마트센서, 전자소자/광소자 및 모듈,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부품, 태양전지 등 관련 나노기술) ▲바이오산업 분야(신약 개발, 바이오의약품, 의약 재창출, 식의약 소재 개발, 제제기술 개발, 체외진단 의료기기, 향장 소재 개발 등 바이오산업) ▲기타 분야(위 3개 분야 외 기술창업)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첨단기술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공공테크노밸리 내 공공기관이 협업해 만든 특화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며 “첨단기술 분야 창업 지원에 베이시캠프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 명동 월평균 임대료 1232만원… 서울 주요상권의 3배

서울시, 1층 점포 1만2500곳 조사  
㎡당 통상임대료 평균 6만9500원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월평균 임대료는 약 40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8일 명동거리, 종로3가 등 관내 140개 주요 상권 내 점포 1만2500곳(1층 위주)을 대상으로 벌인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당 통상임대료(월세+보증금 월세전환액+공용관리비)는 평균 6만9500원으로 전년 대비 6.6% 상승했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은 58.7㎡이었다. 시는 ㎡당 통상임대료에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을 곱해 월평균 임

대료를 408만원으로 계산했다. ㎡당 보증금은 99만4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을 적용하면 5835만원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동거리였다. 명동거리의 ㎡당 월 21만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 임대료가 1232만원이나 됐다.

강남역(14만3600원), 여의도역(10만9700원), 압구정 로데오(10만3400원), 선릉역(10만1700원)도 ㎡당 월 10만원을 넘어서면서 평균을 웃돌았다.

매출액은 ㎡당 37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상권 중 ‘강남 가로수길’이 61만6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을지로3가(57만4000원), 고덕역(56만원), 신림역(53만8000원)이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로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2021년 30만7000원에 비해 전반적인 매출이 21.1% 늘었다”면서 “이에 임대료 또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서울 주요상권 점포당 평균 초기투자비는 약 1억1498만원으로 파악됐다. 초기투자비는 보증금과 권리금, 시설투자비로 구분된다. 권리금(4342만원), 보증금(4020만원), 시설투자비(3137만원)순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많았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해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고액·상승 체납자 1540명 신규명단 공개

공개자 체납액 총 1023억 달해

서울시는 고액·상승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한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승체납자들이다.

신규 명단공개자(예정) 1540명의 체납액은 1023억원이다. 기존 명단공개자 1만4162명이 밀린 세금은 1조6506억원에 달한다. 기존과 신규 명단공개자를 합쳐 총 1만5702명이 1조7529억원을 체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명단공개 신규대상자에게는 등기로 사전 통지서가 발송된다. 시는 올해 9월 말까지 소명 기회를 준다. 이 기간

안에 공개 제외 사유를 밝히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한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안 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 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가택 수색, 공매 등의 체납 처분에도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디즈니, 구조조정 착수…해고 대상자 통보 시작 /사진 뉴시스  
▲ 골드만삭스 “AI로 생산성 끌어올린 다…세계경제 연 7% 성장”

▲ 일본산 광물도 IRA 혜택…미·일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 체결  
▲ 유럽은행들 SVB·CS 사태 이전부터 예금 빠져나가



▲ 마잉주 전 대만 총통 방중…국공내전 종료 74년 만에  
▲ 반정부 시위 20만명…한발 물러난 네타냐후 “사법개혁 입법 연기” /사진 뉴시스